

핵심주제

- 2019동방경제포럼 행사 일정 관련 제안 접수 개시
- 부랴티아 공화국, 차바이 칼스크주 극동연방관구로 편입
- 극동 선도개발구역 예산 139억 루블 증액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11월 23일, News.mail.ru

2019동방경제포럼 행사 일정 관련 제안 접수 개시

동방경제포럼 조직위는 제5회 동방경제포럼 공식일정 행사 구성과 관련된 제안을 4월 3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세션 구성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러시아 극동개발부, 기타 정부 부처, 극동 개발 기관, 전문가 커뮤니티 및 사업계가 제공할 전망이다. 2019동방경제포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4-6일간 열린다.

<https://news.mail.ru/politics/35467331/>

2018년 11월 17일, TASS

메드베데프 총리, 2019동방경제포럼으로 아태지역 사업가들 초청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극동 내 프로젝트들을 접해보지 못한 아태지역 기업들을 2019년 동방경제포럼으로 초청하였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올해 11월 17일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담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 총리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에 현재 사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계 우수사례들과 견줄만 하다.

<https://tass.ru/ekonomika/5803704>

2018년 11월 9일, 'Vostok Rossii'

제 5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프로젝트 발표

관련 제안은 올해 11월 8일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세션에서 밝혔다. 한국 현대엔지니어링이 프로젝트 타당성조사를 준비중이다.

<https://www.eastrussia.ru/news/kompaniya-iz-yuzhnoy-korei-vzylas-za-proekt-rekonstruktsii-porta-slavyanka-v-primore/>

극동 국가정책

2018년 11월 29일, TASS

VEB.RF, 블라디보스토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국영 발전진흥기업 VEB.RF와 연해주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교통, 공공인프라 및 기타 분야 현대화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계약이다. 도시 발전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들도 참여할 전망이다.

<https://tass.ru/ekonomika/5848832>

2018년 11월 27일, 'RIA News'

극동개발 국가 프로그램 제안접수 사이트 12월에 공개

러시아 국민 누구나 dB2025.py 사이트를 통해 국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들의 전문가 심사가 진행되고 전문가, 여론대표, 학자들이 심사에 참여한다.

<https://ria.ru/society/20181127/1533580398.html>

2018년 11월 21일, REGNUM

극동 선도개발구역 예산 139억 루블 증액

메드베데프 총리는 6개 선도개발구역의 입주기업들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 교통, 유틸리티 인프라 시설들의 건설 목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행령에 서명하였다.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27년까지 지역 및 연방 세금 수익은 750억 루블 이상으로 예상된다.

<https://regnum.ru/news/2523128.html>

2018년 11월 4일, 'RIA News'

부랴티아 공화국, 자바이칼스크 주 극동연방관구로 편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두개 지역을 시베리아연방관구에서 극동연방관구로 편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극동연방관구에 총 11개 지역이 속하게 되었다. 극동 개발을 위해 발효된 모든 법안은 부랴티아 공화국, 자바이칼스크 주에도 올해 말 전으로 적용이 완료된다. 또한 정부가 신설한 극동개발기관들도 해당 지역으로 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https://ria.ru/politics/20181104/1532127699.html>

2018년 11월 23일, TASS

2019년에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 '나인브릿지' 협력 추진 계획서 체결

우윤근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가 올해 11월 23일 '한러 경제협력대화 컨퍼런스'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협력 프로젝트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석유가스, 철도, 에너지, 농업 및 어업 분야의 한러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양국간 협력이 활성화되면 2020년까지 연간 교역량 300억달러 달성, 인적교류 100만명이라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https://tass.ru/ekonomika/5825529>

2018년 11월 8일, 'Rossiskaya gazeta'

포항에서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진행

700명 이상의 정치인, 사업가, 학자, 언론인들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행사에서 극동 9개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가들이 한국측에 투자 가능성을 홍보하였다.

포럼 결과물로 러시아와 한국 지방간 교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https://rg.ru/2018/11/08/rossijsko-korejskij-forum-mezhregionalnogo-sotrudnichestva-proshel-v-phohane.html>

극동 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8년 11월 15일, 'Moskovski Komsomolets'

'즈베즈다' 조선소, 대형 유조선 양산 개시

조선소는 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을 위한 대형 유조선의 양산을 시작하였다.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의 첫 진수식은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총 30건의 선박 및 구조물 제작을 수주하였다. 유조선 외에 조선소는 쇠빙선, 다목적 보급선, 극지셔틀 및 해상채굴플랫폼 구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https://www.mk.ru/economics/2018/11/15/novaya-era-sudostroeniya-zvezda-nachala-seriynoe-proizvodstvo-tankerov-aframaks.html>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

www.roscongress.org